

공장 하루 세운 금속노조 “윤석열 즉각 파면”

27일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 민주노총, 매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내란 세력 청산하자”

금속노조가 27일 민주노총과 함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금속노동자들은 하루 일손을 놓고 서울, 부산 등 전국 14곳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 서울대회는 노동자 고공농성이 벌어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세종호텔에서 각각 시작했다. 경기·서울·인천지부와 기아차·한국지엠지부 등 금속노조 수도권 지역 조합원들은 서울노동청 앞으로 모였다.

고공농성 13일째인 김형수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 전화 연결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지난 15일 새벽 서울고용노동청과 한화 본사 사이 30미터 CCTV 첩탑 위에 올랐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원청에 하청노조 인정, 2024년 임단협 마무리, 교섭 방해 중단 등을 요구한다.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파업 방해 등으로 많은 조합원이 떠났다”라며 “윤석열은 노동 탄압, 민생 외면도 모자라 내란까지 저질렀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2가를 행진해 민주노총 총파업·총력 투쟁 본대회가 열린 광화문 앞 세종대로로 향했다.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치고 서울 시민들에게 윤석열 파면 투쟁에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본대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배신했다. 지금 헌재는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일정을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도 무대에 올랐다. 안규백 지부장은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늘 총파업을 하고 이곳에 모였다”라며 “윤석열 탓에 지금 노동자들은 안녕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내란범 윤석열이 아직 파면되지 않고 정권 연장을 꾀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안규백 지부장은 “윤석열은 내란 이전부터 노동자들 탄압에 공권력을 집중했다. 하루빨리 파면 시켜야 한다” 라며 “노동 중심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자.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한국지엠 노동

자들도 함께 투쟁할 것” 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다음 달 3일과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해고 8개월째 지오메디칼 노동자들 “끝까지 싸운다”

광주전남지부 지오메디칼지회, 오렌즈 매장 1인 시위 등 복직 투쟁 진행

2024년 4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새 식구가 생겼다. 바로 지오메디칼 노동자들이다.

지오메디칼은 ‘서클렌즈’ 라고 부르는 컬러 콘택트렌즈를 만든다. 지오메디칼 광주공장에서 만든 렌즈 90%를 모회사 스타비전에 납품한다. 오렌즈(OLENS) 전국 356개 매장에서 판매한다.

장영식 광주전남지부 지오메디칼지회장은 금속노조 가입 배경을 설명하며 지오메디칼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지적했다.

지오메디칼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임금 불만이 크다. 2025년 시급은 법정 최저시급보다 470원이 많다. 이마저도 지난해 노동조합이 생긴 덕분에 예년 임금보다 조금 더 오른 편이다. 저임금 탓에 평일 퇴근 후나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기도 한다.

장영식 지회장은 “회사 조직 문화는 한마디로 상명하복 그 자체다. 사측 말 잘 듣고 관리자와 친한 사람들을 보란 듯이 승진시킨다” 라며 “인사 처리에 보편적이고 일관된 기준 같은 건 없다. 증거도 없이 사람들을 의심하고 강제 발령 내기도 한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회가 선후배 동료들에게 노조 가입 권유 문자를 보내자, 지회장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 지회 소식지에 성과급 추정 금액을 실었더니 교육선전부장을 문책했다.

지회 설립 3개월도 채 안 된 지난 7월, 사측은 지회장과 교육선전부장을 자택 대기 발령시켰다. 7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일 해고 통보했다.

장영식 지회장은 해고 8개월째 공장 앞에서 부당해고와 복직을 외친다. 올 3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작년 11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이은 당연한 결과다.

사측은 버틴다. 이행강제금을 수천만 원씩 부담하며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는다. 시간을 끌며 노조파괴에만 열 올린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지오메디칼지회는 3월 19일 서울, 인천,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오렌즈 매장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오렌즈 매장 앞에서 지오메디칼 사측의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즉각 복직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린다.